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4.21(금) ~ 2023.04.27(목)

제공일시 2023 05 0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4.21(금) ~ 2023.04.27(목)

제공일시 2023 05 0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美,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제한 추진... "2040년까지 제로로"

-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환경보호국(EPA)이 제출한 기존 화력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규칙을 검토하고 있음. (연합뉴스, 2023.04.23) 강병철 기자
- 새 규칙은 기존 석탄·가스 발전소를 포함해 모든 화력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40년까지 '제로(0)'에 가깝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 매체에 전했다.
- 탄소 포집장치의 사용이 의무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화력 발전소의 탄소 포집 장치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규칙이 시행되면 기존 화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연방 정부의 첫 조치가 되며, 화력발전소 업계 등에서 소송 등을 통해 대응을 나설 것으로 보임.

2. 유럽 9개국 '녹색동맹' 뭉쳤다... "북해 해상풍력 300GW로 확대"

- 유럽 전력수요의 6배에 달하는 에너지 잠재력을 갖춘 북해를 '풍력발전 허브'로 만들기 위해 유럽 9 개국이 뭉쳤다. (뉴스트리, 2023.04.25) 이재은 기자
- 유럽연합(EU) 7개국(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아일랜드)과 노르웨이, 영국은 벨기에 오스텐더에서 가진 회담에서, 2050년까지 북해 해상풍력 발전규모를 대폭 확대해 탄소중립과 러시아산 가스 탈피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음.
- 회담을 통해 각국 정부는 북해 해상풍력 발전시설 복합용량을 현재 30기가와트(GW) 수준에서 2030년 120GW, 2050년 300GW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음.
- 네덜란드와 영국은 해상풍력발전소와 연결되는 유럽 최대 국경횡단 전력케이블을 건설하기로 했으며, EU와 노르웨이는 북해 가스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개발할 예정임.

3. EU, 2025년부터 항공기 공항 급유시 '지속가능 연료' 사용 의무화

- 26일(현지 시각) EU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유럽의회 간 항공 분야 탈탄소 대책을 담은 '리퓨얼EU'(REFuelEU) 명칭의 새 규정에 대한 3자 협의회 최종 타결됐음. (조선비즈, 2023.04.27) 유병훈 기자
- 새 규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EU 27개국 전역 공항은 항공기에 급유할 때 등유를 기반으로 한 기존 항공유에 SAF를 최소 2% 이상 섞어야 함.
- 의무 포함 비율은 2025년 2%부터 ▲2030년 6% ▲2035년 20% ▲2050년 70% 등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오는 2030년부터는 SAF 종류 중에서도 '가장 저탄소'로 꼽히는 합성연료 포함 비율을 별도로 정했음.
- 가령, 2030년에는 등유에 SAF를 최소 6% 포함하되, SAF의 1.2%는 합성연료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임.

1.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박차...환경부 "통계 만들고 중장기 수요 분석"

- 환경부가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중장기 수요분석을 실시하여,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정책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전자신문, 2023.04.23) 최다현 기자
- 열분해유 제조 시설을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시설이 아닌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기준을 간소화하고, 연도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배출원과 종류별로 통계를 확보할 계획임.
- 환경부는 향후 발생량 분석은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되, 광역자치단체 등의 권역별 분석도 실시할 계획임
- 또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업종별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에 등 규제에 따른 생산수요 분석, 열분해시설 추가 설치 계획 예측을 실시함.

2. 도심내 근거리 택배, '화물용 전기자전거'로 배송 가능해진다

- 주요 선진국에서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활용되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국내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23.04.25) 이슬기 기자
-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친환경 신(新)모빌리티로 꼽히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음.
- 현재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심판부는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물류업계 사례를 고려하여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외 기준과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권고했음.
- 아울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처에 권고했음.

3. 전경련-美상의, '첨단산업·핵심기술분야' 협력방안 논의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워싱턴 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및 한미 첨단산업 포럼을 개최하여 한미 간 첨단산업, 공급망, 핵심기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음. (뉴데일리경제, 2023.04.26) 이가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주요 한국기업의 총수 및 퀄컴, IBM, MS, 보잉, GE, 테슬라 등 주요 미국기업 대표 등 총 39명이 참석했음.
- 패널토론에서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대미투자자와 협력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구영 한화솔루션 사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이 패널로 참여해 첨단산업 한미협력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음.
- 한화솔루션은 올해 미국 태양광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현지 생산전략 전환을 통해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에너지부문에서 협력을 넓히고 있음.

4. '녹색국채' 발행 추진하는 정부... "그린워싱 막아라"

-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녹색국채 도입 관련 용역을 발주함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ESG 열풍에 힘입어 '녹색국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경ESG, 2023.04.25) 강경민 기자
- 기재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녹색국채 발행 과정에서 이른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 특히 녹색국채를 발행했다가 친환경 정책과 관계없거나, 되레 환경을 해치는 분야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린워싱을 방지하고자 함.
- 정부의 이번 녹색국채 관련 용역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사전단계라는 분석도 나옴

1. 노르웨이, 탄소포획 프로젝트 고비용으로 일시 중단

-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폐기물 공장에서 탄소배출을 포획하는 프로젝트가 대규모 비용 초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1년 동안 중단됐음
- 하프스룬드 오실로 셸시오(Hafslund Oslo Celsio) 대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급업체의 높은 비용,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킨 지정학적 불안정 등 다각적인 이유가 원인이라고 함.
- 회사는 비용 절감방법을 찾기 위해 12개월 동안 공백기를 가지며, 프로젝트 오픈이 2026년 시점보다 더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음.
- 클레메츠루드에서 포착된 탄소는 노르웨이 대형 CCS프로젝트의 일부인 시멘트공장의 탄소포획, 노던라이츠 운송 및 저장프로젝트도 포함되었으며, 이곳은 오슬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4%를 포획할 것으로 예상됐음.

(Reuters, 2023.04.26) Nora Bull 기자

2. 네슬레, 재조림 모니터링 위해 에어버스 위성 시험

- 네슬레가 회사의 산림녹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에어버스의 새로운 ‘플레아데스 네오(Pléiades Neo Constellation)’ 위성을 시험한다고 발표했다.
- 네슬레는 2021년 ‘숲 포지티브’ 전략을 채택, 2030년까지 2억그루 나무를 복원 및 재배하겠다고 약속했음.
- 또 네슬레는 위성기반 서비스인 ‘스털링’을 통해 팜유 공급망, 펄프, 코코아 공급망의 산림벌채를 모니터링하는데, 이번 시범사업은 태국 남부 네슬레의 산림녹화에 적용될 예정임.

(ESGToday, 2023.04.27) Mark Segal 기자

3. 미 대법원, 엑손모빌과 세브론의 기후 사건 항소 기각

- 미 연방대법원은 엑손모빌, 선코에너지, 세브론에 제기된 기후 소송에 대해 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음.
- 수많은 정유사 기후소송에서 이를 어디서 심리할 것인지는 미국 내 최대 관심사중 하나임.
- 정유사들은 기후소송이 ‘국가적이며 세계적인 규모의 문제’이지, 주법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법원 차원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 지난 3월 조바이든은 미 행정부는 엑손과 선코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재판관에게 촉구하기도 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입장과는 정반대임.

(Reuters, 2023.04.25)
Clark Mindock, Nate Raymond 기자

1. SK E&S·HD한국조선해양, 미국 기업들과 손잡고 '블루수소 사업' 시동

- SK E&S와 HD한국조선해양이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기간 중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한미 첨단산업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에서, 미국 기업들과 청정 블루수소 사업 협력을 약속했음. (한국일보, 2023.04.26) 김형준 기자
- SK E&S와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의 GE, 플러그파워와 '블루수소 생산·유통·활용을 위한 전주기 사업 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음.
- 이날 협약식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수소터빈과 수소연료전지 등 미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수소 밸류 체인에 최대한 빨리 적용하고, 연간 25톤(t) 규모 블루수소를 생산, 유통, 활용할겠다는 계획임.

2. LG화학, LFP 양극재 진출 추진... "새만금 JV 中지분 매입 검토"(종합)

- LG화학이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발효에 따라 LFP 양극재를 찾는 고객사에 대응하기 위해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음. (뉴스1, 2023.04.27) 김충윤 기자
(연합뉴스, 2023.04.27) 김기훈 기자
- LG화학은 27일 열린 1분기 실적 발표 및 콘퍼런스콜에서 고객사들이 LFP 양극재 공급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라 LFP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LG화학 관계자는 LFP 배터리 사업 핵심 요인인 원재료 구축을 위해 외부 협력업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LG화학은 일단, 새만금 전구체 공장을 빠르게 구축할 계획이며, 전북 익산 공장에서 개선 작업 중인 신기술을 새만금에 적용하기로 했음.

3. 그린수소에 쫓긴 건설업계... 무탄소 생산부터 수출까지

- 건설업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에너지로 꼽히는 수소 사업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뛰어 들고 있음. (국민일보, 2023.04.24) 강창욱 기자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무탄소 생산부터 운송·저장 기술 개발, 해외 필수 전력 수출까지 전방위로 밸류 체인을 확대 중이며, 특히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수소를 만들어 활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
- 현대건설은 전북 부안군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에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를 건설 중이며,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최근 일본 치요다화공건설과 업무협약을 맺고 그린수소 운송·저장 기술로 사업 범위를 확대했음
- SK에코플랜트와 현대엔지니어링은 미국 초소형모듈원전(MMR) 전문기업 USNC와 '핑크수소'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탄소배출 없는 수소 생산 모델' 다각화를 시도 중임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4.21(금) ~ 2023.04.27(목)

제공일시 2023 05 0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CDP, 플라스틱 모듈 출시...플라스틱 관련 영향 공개 최초 요구

- 글로벌 환경정보 플랫폼인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는 지난 19일 기업의 플라스틱 관련 영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모듈을 공개했음. (임팩트온, 2023.04.24) 송준호 기자
- CDP는 전 세계 기업 1만 8600여 곳이 환경 정보를 공개하는 플랫폼으로, 주로 탄소배출량과 관련된 보고를 받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이 CDP를 통해 보고되고 있음.
- CDP는 “136조 달러(약 18경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740여 개 투자자가 기업의 플라스틱 관련 영향을 공개해달라는 요청과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글로벌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 정보를 요구하게 됐다”고 플라스틱 모듈 개발의 취지를 밝혔음.
- CDP는 정부가 기업에 플라스틱 관리 비용을 청구하면 그 비용이 연간 1000억달러(약 132조원)로 추산되며 약 4000억달러(약 529조원)에 육박하는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투자가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특히 플라스틱 오염이 기업과 투자자의 재정, 물리, 법, 기술, 규제와 평판 부문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CDP는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 100곳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90%를 생산하며, 전체 석유 및 가스의 연간 총사용량의 4%가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 CDP는 회원사인 금융기업의 81%는 CDP가 요청한 플라스틱 관련 정보가 재무 또는 조달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음.
- 투자자들은 주주제안을 통해 플라스틱 문제가 큰 산업 부문에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아마존, 엑손모빌, 맥도날드를 포함한 기업들은 지난해 플라스틱 감축 노력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라는 주주제안을 받았음.
- ESG 행동주의 투자그룹인 애즈유소우(As You Sow)는 엑손모빌과 맥도날드, 필립스66, 아마존에 플라스틱에 관한 주주제안을 올렸음. 엑손모빌과 필립스66은 버진(Virgin) 플라스틱과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도록 하는 제안을 받았는데 각각 37.4%, 50.4%의 찬성표가 나왔음.
- 또 맥도날드는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주제안을 받았고 41.9%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이 이를 지지했음. 아마존도 포장재 문제에 관한 제안을 받고 48%의 찬성표가 나왔음.
- 투자자들은 단체 행동을 통해서도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CDP 서명 기관인 카르다노(Cardano ACTIAM), 보스턴커먼 자산운용, 트리오도스 투자운용, 로베코를 포함한 55개 금융기관은 2022년 12월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위협에 상장 기업의 대응을 촉구하는 ‘플라스틱 솔루션 투자자 연합’을 결성한 바 있음.
- 이러한 흐름에 따라 CDP는 플라스틱에 관한 글로벌 사회의 약속에 기반해 플라스틱 모듈을 만들었음. 플라스틱 정보 공개와 관련한 질문은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문 기관인 엘렌 맥아더 재단과 유연환

경제기획(UNEP)이 기존에 발표한 플라스틱 관련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모듈화했음.

- 플라스틱 모듈은 CDP의 물 안보 모듈에 통합됐고 9개의 질문으로 구성됐음. 모듈은 기업에 가치 사슬 내 플라스틱 관리, 환경과 인체에 대한 잠재적 영향, 비즈니스 위험, 생산 및 사용한 플라스틱 총중량과 원료 함량, 순환성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짐.
- 케이트 램 CDP 물 안보 글로벌 디렉터는 “기업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우고 투자자와 정책 입안자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각국 정부가 환경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를 발표하고 있는데, 플라스틱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기를 바란다”며 “CDP 모듈이 제공하는 플라스틱에 관한 대규모 데이터가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